

시간이 만든 기적 충남

자원봉사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는 국립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충남도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충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최원철 공주시장,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현호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욱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장, 민영완 충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간이 만든 기적, 우리가 만든 감동'이라는 주제로 △부여군 충남국악단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8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이 사회에 공헌하는 과정 속에서 고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우수 봉사자 본인 간병비 지원 △지역 소상공인 할인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대전중구 문화·도시재생

혁신 현장 춘천시 방문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혁신현장 사례탐구 교육사업'의 다섯 번째 방문지로 법정 문화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방문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이번 탐방에는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직원 30여 명이 ▲꿈꾸는 예술터 춘천 ▲모두의 살롱 (후평동, 효자동) ▲아름다운 생활문화센터 ▲춘천 사회혁신센터 커먼즈빌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상언더그라운드 ▲김유정 문학촌 등을 방문해 관련 정책과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꿈꾸는 예술터'에서는 옛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전용공간으로 변화시킨 정책 사례와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이어 찾은 '모두의 살롱 후평동'에서는 빈집을 재생하여 조성한 시민문화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이 생활문화활동을 향유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춘천에서는 문화와 도시재생이 사람과 공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다"라며, "선진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가 접목된 중구형 문화도시 및 도심재생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강경 주민도 도시가스로 '불' 밝힌다!

충청남도, 도시가스 특별 공급 1호 완성...250억 원 투입 배관망 40km 구축



올 겨울 충남 논산 강경 주민들도 도시가스로 보다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논산 강경 근린공원 일원에서 도시가스 특별 지원 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개통식은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경 도시가스 공급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민선8기 출범 이후 마련한 특별 지원 사업에 따라 추진했다. 충남도는 2023년 8월 논산

시·JB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2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해 논산 산업단지에서 강경을 일원까지 40km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했다. 특별 지원 1호 사업인 강경은 수해 가구가 8개 사업 대상 지역 중 가장 많은 3500세대다.

충남도는 이번 도시가스 개통에 따라, 강경 주민들이 기존 등유나 LPG에 비해 연간 30% 가량의 난방비 절감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도지사는 "가스는 난방과 취사에 필수적인 만큼, 이를 안전한

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경읍에 새롭게 칸 40km의 배관망은 기존 논산시 전체 배관 길이의 30%가 넘는 정도이며, 사업비 250억 원도 전체 사업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불편하고 고생하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하길 고대했는데, 이렇게 숙원을 풀어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은 도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저렴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며, "2028년까지 도시가스 배관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200억 원을 투입하고, 바우처 등 복지 사업에도 500억 원을 지원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도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4월 서산 운산 630세대에 새롭게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산 부석은 내년 11월, 보령 웅천은 2027년 10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현진 기자

모두의 돌봄, 모두의 디자인 생각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리프레이밍 소통시리즈》

대전시는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의 기획 프로그램인 《리프레이밍 소통시리즈》 두 번째 편으로 '모두의 돌봄, 모두의 디자인'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리프레이밍 소통시리즈》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벗어나 시민의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실험적 소통 프로젝트다.

이번 '돌봄' 편은 "돌봄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도시의 보편적 의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워크숍은 '돌봄·나이들에 대하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하여' 두 개의 발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서울연구원 안현찬 연구위원과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이범재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안현찬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도시에서의 '포용적 돌봄 도시' 방향을 제시하며, 일상 공간 속에서

구현되는 지역 기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범재 대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통해 "모두가 편한 사회보다, 모두가 불편을 조금씩 나누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임을 강조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현장에는 시민, 장애인 그룹, 돌봄·복지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함께해 다양한 시각에서 돌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나들이가 존엄할 수 있는 도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사회'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돌봄을 시설 중심의 제도가 아닌 일상적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상과 제도가 만나는 정책적 상상력을 공유했다.

전재현 국장은 "돌봄을 특정 세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도심 속 양봉 생태계 꾸려 나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세종실에서 도심 속 꿀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도시양봉 활성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생태환경 복원, 시민 정서 치유와 지역 상생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각각 전문 역량을 모아 지속가능한 도시양봉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양봉 질병관리 방역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능형(ICT) 양봉 체계 구축 및 방역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 내 유휴공간과 공공부지를 활용, 꿀벌정원(폴리네이터 가든)을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양봉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점

검하고, 시민 참여형 체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양봉 산물의 사회적 기부와 세종형 도시양봉 상징물 공동 상표 출원 등 후속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는 도시 면적 절반 이상이 정원과 녹지로 이뤄져 꿀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도시양봉과 꿀벌산물의 사회적 기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하반기 도로명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판 설치의 신설 도로구간과 교차로 등 시설물 설치를 필요로 하는 구간 56곳을 우선 선정해 진행했다. 특히 신규 조성된 노장산업단지 도로에 도로명판 46개를 집중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채봉 기자

